



SGS400 세상을 변화시킬 400명의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뉴스레터

SYU Social Service Organization

제27호 / 발행일: 2011년 11월 11일

발행인: 김기곤 / 편집인: 김원곤

발행처: 사회봉사단

<http://www.syu.ac.kr>

<2011년 원예학과 필리핀 하계 봉사대>

지난 7월 17일(일)부터 28일(목)까지 이창섭 목사(원예학과 담당)와 김재현(기획처), 윤혜진(원예학과 3) 학우 외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원예학과 봉사대는 필리핀 마닐라 외곽 지역인 실랑의 1000MM center로 봉사를 다녀왔다.

원예학과 봉사대는 실랑의 1000MM center 지역에서 학과 전공의 특성을 살린 조경시공 봉사과 문화 나눔 봉사를 진행하였다. 필리핀 지역에 어울리는 식물을 알아보는 시장조사 과정을 통해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꽃과 그 꽃들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면서 전공 공부 또한 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다소 넓은 부지였지만 20여명의 소규모 대원들은 페인트 덧칠 작업부터 화단에 꽃을 심는 작업까지 최선을 다해 봉사했다. 조경시공 봉사가 끝난 후에는 집집방문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한국 전통 물품을 나눠주고 외롭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겐 말벗이 되어주었다. 또한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 비눗방울 놀이, 종이접기, 제기차기, 공기 등의 놀이를 통해 한국 놀이 문화를 알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필리핀 현지인들 앞에서 꼭두각시와 부채춤 공연을 함으로써 한국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하계 봉사대에 참가했던 임균미(원예학과 3) 학우는 '온통 나에 대한 생각과 이기로 가득하던 삶이었지만 이번 봉사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봉사를 하러간 곳에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다.'고 말했다. 이미라(원예학과 3) 학우는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를지라도 분명 진심은 전달된다는 것을 느꼈다.'며 '필리핀 지역에서의 봉사를 통해 내 인생에 또 다른 목표를 가지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다.'라고 이번 봉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4박 5일 동안 진행된 짧은 해외봉사였지만 그 곳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환경을 아끼고 보존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필리핀에서 현지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그것을 평생의 삶에 실천하겠다는 초기의 목적의식 뿐 만 아니라 양보와 협력의 정신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감을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이 종미 학생기자 lovejm921@naver.com